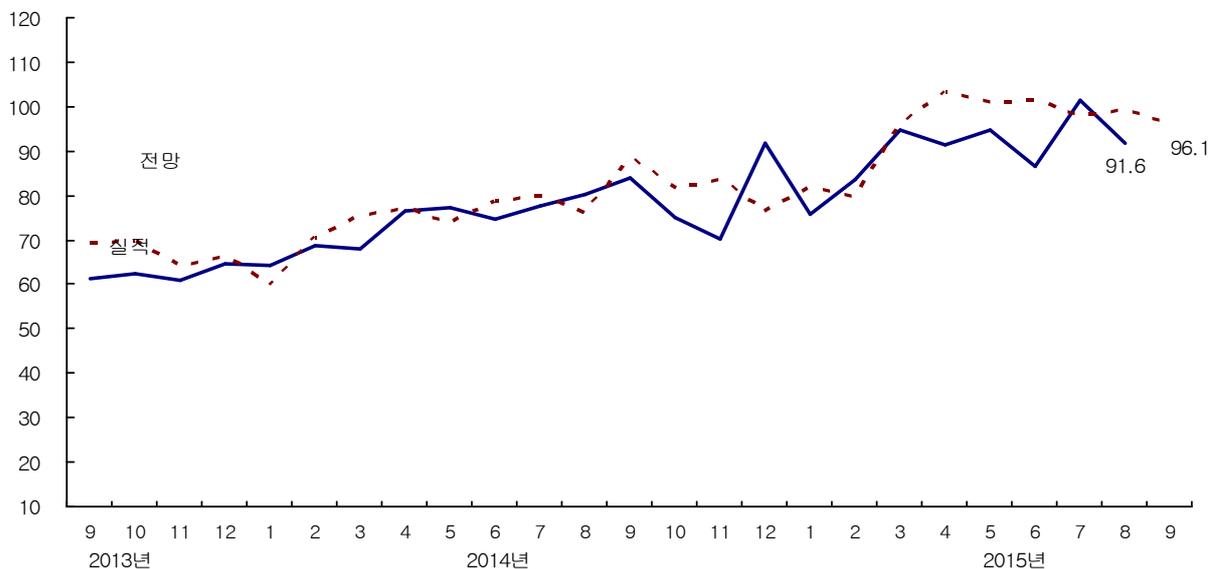


# 2015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8월 CBSI 9.7p 하락한 91.6 기록  
계절적 요인과 통계적 반락 효과로 다소 조정

- 2015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9.7p 하락한 91.6을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7월에 1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했으나, 8월 들어서는 다시 하락함.
  - 이는 본격적인 혹서기 진입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전월 CBSI가 크게 상승(14.6p)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특히 대형기업 지수가 전월비 17.3p 하락해 전체 CBSI 하락을 주도했는데, 이 역시 전월 지수가 매우 양호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로 판단됨.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인 7월에 125.0을 기록해 13년 2개월내 최고치를 기록했음.
  - 8월 CBSI가 전월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90선을 유지해 양호한 편임.
  - 결국 계절적 요인과 통계적 반락 효과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다소 조정되었지만, 1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CBSI가 기준선을 상회한 7월에 비해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건설경기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지수가 하락했는데 특히 대형기업 지수의 하락폭이 컸음.
  - 대형기업 지수는 13년 2개월내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에 비해 17.3p 하락한 107.7을 기록함. 주택부문 신규공사 지수가 전월 158.3에서 115.4로 크게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큰 하락폭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어 대형기업의 체감경기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2.8p 하락하여 91.9를 기록했음. 상반기에는 중견기업 지수의 변동폭이 비교적 컸으나, 6월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었는데 8월에는 계절적 요인 및 통계적 반락 효과로 인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8.4p 하락한 72.5를 기록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지수 자체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중소기업 지수는 올해 들어 51.9~82.0 사이를 오르내리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규모별 · 지역별 건설경기 BSI 추이 >

구 분	2014년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4.9	70.4	91.7	75.8	83.5	94.9	91.4	94.6	86.7	101.3	91.6	99.2	96.1	
규모 별	대형	92.3	92.3	100.0	100.0	115.4	108.3	115.4	100.0	125.0	107.7	125.0	100.0	
	중견	78.8	70.0	97.0	71.9	90.6	103.1	94.6	84.2	91.9	94.7	91.9	97.3	
	중소	50.0	45.1	76.0	51.9	56.0	61.5	67.9	82.0	65.3	80.9	72.5	90.2	
지역 별	서울	85.4	85.8	94.4	86.2	98.0	107.9	102.5	103.0	97.4	115.2	100.5	114.2	100.0
	지방	59.6	47.5	87.9	60.7	62.2	75.1	75.6	82.6	71.0	80.4	78.4	76.8	90.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5년 9월 CBSI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4.5p 높은 96.1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9월에는 건설경기가 8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9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올 9월에도 CBSI가 8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 8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기업이 전월보다 14.7p 하락한 100.5를, 지방 기업도 2.0p 하락한 78.4를 각각 기록함.
  - 서울기업 지수는 지난 7월 115.2를 기록, 지난 2002년 5월 120.9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로 매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8월에는 이에 대한 통계적 반락 효과로 14.7p 하락한 100.5를 기록함. 비록 전월보다 하락하였지만 기준선을 넘어서 다소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방기업 지수의 경우 지난 7월 80선 이상인 80.4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8월에는 2.0p 하락한 78.4로 지수가 70선으로 떨어짐.

**2015년 8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 103.9 기록, 전월비 4.8p 상승**

- 2015년 8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4.8p 상승한 103.9를 기록함.
  - 지난 6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11.6p 감소한 93.2로 기준선 이하로 부진했음.
  - 7월에는 전월보다 5.9p 상승한 99.1을 기록해 기준선(100.0)에 근접한 이후 8월에도 4.8p 상승하여 기준선(100.0)을 넘어선 103.9를 기록함.
  - 여름철 비수기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가 전월에 비해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택 건축 공사가 전월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됨.
- 공종별로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토목과 비주택 건축은 모두 기준선 이하로 부진하였으나, 주택 공종이 기준선을 넘어서 전월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남.
  - 주택 공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비록 전월보다 14.5p 하락하였지만, 기준선(100)을 상회한 100.7로 전월보다 공사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비주택 건축공사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24.0p 감소한 85.1로 공종별로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토목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6.5p 하락한 85.5를 기록함.

- 기업 규모별로는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중견과 중소기업 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기업의 신규 공사수주는 전월 대비 2.5p 하락한 130.8로 나타남. 비록 전월 대비 하락하였어도 기준선(100.0)을 넘어서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됨.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기준선인 100을 기록한 가운데 주택이 115.4로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됨.
  - 중견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보다 5.3p 상승한 100.0을 기록함. 주택이 116.7로 매우 양호했음. 비주택과 토목의 경우 94.6, 86.5를 각각 기록함.
  - 중소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13.1 상승한 76.9를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이 67.3, 주택과 비주택이 65.3, 56.9로 비주택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 공사수주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103.9	130.8	100.0	76.9	120.7	78.8
	전망	101.9	123.1	97.3	82.4	113.6	84.3
토목	실적	85.5	100.0	86.5	67.3	93.8	73.0
	전망	92.8	115.4	89.2	70.6	103.4	76.9
주택	실적	100.7	115.4	116.7	65.3	115.5	78.2
	전망	101.9	115.4	111.1	75.5	113.9	83.7
비주택	실적	85.1	100.0	94.6	56.9	94.9	70.3
	전망	93.0	107.7	94.6	74.0	102.0	79.5

주 : 실적은 2015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9월 예측지수임.

- 한편, 2015년 9월 신규 공사수주 전망지수는 101.9를 기록함. 비록 지수 자체는 8월보다 소폭 하락하였지만, 기준선(100.0)을 넘어서 8월 수주 실적과 비슷하거나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함.
  - 공종별로는 주택의 전망지수가 101.9를 기록해 가장 양호할 것으로 전망함.
  - 토목과 비주택의 경우 각각 92.8, 93.0으로 각각 전망함.

**건설공사 기성 지수 107.9 기록해 기준선 상회,  
수주잔고 지수는 96.8 기록**

- 8월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17.3p 상승한 107.9를 기록해 전월보다 건설

공사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됨.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과, 중견기업의 기성 물량이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건설공사 기성지수는 지난 7월 계절적인 요인으로 전월보다 18.8p 하락한 90.6으로 기준선을 하회하였음.
- 그러나, 8월 전월보다 17.3p 상승한 107.9를 기록해 전월보다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분석됨. 상반기 계약된 공사의 기성진척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대형기업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30.8p 급등한 130.8을 기록함.
- 중견기업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또한 전월보다 16.2p 상승한 108.1로 기준선(100)을 넘어섬.
- 한편, 중소기업 지수의 경우 전월보다 2.5p 상승하였으나 지수 자체는 80.8로 기준선 미만으로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다음 달 전체 건설공사 기성 지수 전망치는 103.5로 기준선(100)을 넘어서 9월에도 역시 양호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8월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0.4p 상승한 96.8을 기록함.
  - 대형기업의 수주잔고 지수가 130.8로 양호했으나, 중견과 중소 기업 지수는 81.1와 75.0을 각각 기록해 부진하였음.
  - 한편, 8월 전체 수주잔고 지수 전망치는 91.1로 완공 공사가 늘어 수주 잔고는 더욱 하락 할 것으로 전망함.

< 건설공사 기성 및 수주잔고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건설공사 기성	실적	107.9	130.8	108.1	80.8	121.8	87.0
	전망	103.5	115.4	108.1	84.3	110.6	92.8
수주 잔고	실적	96.8	130.8	81.1	75.0	110.4	76.5
	전망	91.1	115.4	81.1	74.0	102.9	73.3

주 : 실적은 2015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9월 예측지수임.

- 한편, 8월 자금 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대금 지수가 101.8로 기준선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자금 조달 지수는 88.0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공사대금 지수는 비록 전월보다 1.8p 감소하였으나, 기준선(100) 이상인 101.8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대형과 중견 기업이 각각 115.4, 108.1로 기준선을 넘어 양호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78.8로 공사대금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보다 4.1p 감소한 88.0을 기록해 지난 7월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중국 발 경기침체와 미국 금리 상승 우려 등 대외 악재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은 100으로 기준선을 기록하였지만, 대형기업이 92.3로 부진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69.2로 매우 부진하였음.

**< 자금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101.8	115.4	108.1	78.8	112.2	86.4
		전망	98.3	107.7	102.8	82.4	104.5	89.0
	자금조달	실적	88.0	92.3	100.0	69.2	95.5	76.8
		전망	92.0	100.0	97.3	76.5	97.5	83.7

주 : 실적은 2015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9월 예측지수임.

끝